



창조경제를 이끄는 현장을 가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와 통하면 기업 성장이 통한다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양봉환, 이하 기정원)은 국내 중소기업 R&D 지원 전담기관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및 한국산업연회 등에서 수행하던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이 기정원으로 통합되면서, 앞으로는 기정원을 통해 모든 중소기업 R&D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정책집행의 효율성·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기술창업→혁신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단계별 지원과 함께 정책기획, 성과확산 역할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R&D 전담기관=기정원은 2015년 기관 업무방향을 정해 올해 초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기정원은 기술개발 성공기업의 사업화를 위해 정책자금(중진공), 보증(기보·신보), 융자(시중은행) 등과 협력 지원을 추진한다. 상반기 중으로 주요 금융기관과 연계해 기술개발 사업화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신규 서비스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관리 선진화 및 평가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품질경영시스템 도입 및 평가위원 역량강화를 추진하는 등 평가시스템을

혁신하고, R&D 평가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표준화·내재화를 실시하고 품질경영시스템 인증(ISO 9001) 획득을 추진한다. 더불어 과제 평가위원의 등급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해 우수 평가위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이를 위해 향후 기술평가 전문교육과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기정원은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경영활동이 어려운 일반 중소기업의 업무효율성 향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저비용 공동활용시스템(경영혁신플랫폼)의 제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금융, 매입·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등 경영정보시스템(기본형 솔루션)을 일반 중소기업에 확대 제공하고, 올해 중으로 신규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적합한 정보시스템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확대를 추진 중이다. 장기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등 정보화경영 취약계층까지 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하고자 한다.

양봉환 원장은 “정부의 중소기업 R&D 투자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그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해

외 선진기업 대비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와 제품기회 능력 모두 73% 수준이며 아직도 R&BD 방식을 적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기정원은 R&D자금 뿐만 아니라 사업전략 및 시장성 분석 등의 기획지원, 연구개발 인력의 역량강화,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연계 등의 지원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공적인 조직 통합, 신뢰기반 구축=중소기업 R&D 통합 전담기관으로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기정원은 앞으로 R&D기획, 성과확산 및 기관간의 연결을 통한 사업화지원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 및 과제 기획 등 R&D기획 기능이 강화돼 선진 R&D지원을 통한 성과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정원은 창의성·실행가능성이 높은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하거나 아이디어 수준의 기술에 대한 로드맵 및 사업전략 수립 등의 기획분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단편적인 자금지원 방식에서 ‘창업→고부가가치→유망기술’로 연계되는 성장경로별 연계 지원 방식으로 변화해, 기술 사업화 전 주기에 걸친 중소기업 R&D 전담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기정원은 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성공적으로 조직을 통합하고, 국내 대표 중소기업 R&D 전문기관으로서의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유쾌하고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고, 동호회 활성화 및 창찬탈레이 등 소통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기정원이 국가와 사회, 기업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관의 비전과 이미지를 재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정원은 R&D 예산 및 인력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R&D 평가장 운영, R&D사업관리 여건 마련을 위해 대전 서구 만년동에 독립사옥(6층 규모)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독립사옥은 내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한편, 기정원은 올해 창립 13주년을 맞아 지난 1월 유성에서 간담회를 열고, R&D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에 대한 각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중소기업 R&D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토론회 이뤄졌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기 R&D 지원 전담기관

전문·효율적 정책집행 역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돕는
단계별 사업 강화도 기대

자금 외 지원방식 확대 계획
시장성 분석 등 기획 돕고
개발된 기술 사업화 연계
연구인력 역량도 키우기로

성공적인 기관 기능조정

‘가족친화기업 인증’ 소통 문화
안정적인 평가장 운영 위해
내년말 독립사옥 완공 추진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R&D 전담기관으로, 중소기업분야의 기능조정에 따라 성공적으로 조직을 통합하고, 국내 대표 중소기업 R&D 전문기관으로서의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터뷰 양봉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중기 기술 경쟁력 강해지면 국민경제도 발전”

기업 역량 맞춰 프로그램 세분화
관리체계 수준·성과 높일 것

“기정원은 올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중소기업 R&D지원의 본질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관리체계 고도화와 성과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양봉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사진)은 올해 기정원의 중점 추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양 원장은 “기정원은 혁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관리 방법을 선진화할 계획”이라며 “평가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국제 품질경영시스템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도록 표준화하고, 성과분석 등을 통한 평가지표 개선과 함께 평가위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분야의 기능조정에 따른 기관 변화 및 역할에 대해서는 성과확산 및 사업화 지원 역량 강화를 꼽았다.

그는 “기술 이전 및 거래 활성화를 통해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개발 성과를 확산하고 공유함으로써 개

방형 혁신을 통한 사업화 성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 R&D에 특화된 전담기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적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정원은 R&D정책기획, 평가관리의 전문성·효율화, 지원성과 제고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고, R&D전주기에 걸친 중소기업 평가관리 전문조직으로 직제개편을 실시했다.

올해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청의 대표사업인 기술혁신개발사업과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이관해, 중소기업이 R&D사업 수행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기업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술혁신개발사업의 경우, 미래 성장유망 분야 및 FTA 대응 글로벌 전략품목의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사업화를 촉진해 한국형 히든 챔피언 육성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R&D 사업화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양 원장은 “중소기업 R&D의 사업화 강화를 위해 선정 및 평가단계에서 사업화가능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선정·평가하고 있다. 더불어 R&

D 이후 사업화 성과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가감점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R&D기획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R&D 기획지원의 경우 개발 타당성 분석, 시장성 조사, 성공가능성 평가, 중기 사업전략 수립 등 사업화를 고려한 R&D 기획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R&D 추진 초기에서 사업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봉환 원장은 “중소기업청 R&D의 주요 추진 목적이 R&D를 통한 사업화 단계 진입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계적으로 사업화 성공률을 더욱 높여갈 필요가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성장단계에 따른 R&D 프로그램을 세분화해 지원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봉환 원장은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장,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중기청 기술혁신국장 등을 거쳐, 지난 2013년 12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디딤돌 금융지원 위해
우리은행과 업무협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은 창업기업 및 유망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우리은행(행장 이광구)과 지난 2월 말 ‘창업성장기업 디딤돌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창업·성장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창업·성장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질 높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동반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해 ▲창업·성장기업 정보제공 및 금융서비스 지원 협력 ▲기업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종합컨설팅 무료지원 ▲성장 단계별 기업환경 및 사업운용에 필요한 금융상품 연계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정원은 이번 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중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디딤돌 금융지원 업무협약’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점진·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정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 지원으로 개발된 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중소기업들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협약이 창업·성장기업의 금융비용 및 컨설팅 비용을 절감하고, 창업·성장기업의 지속적인 성장효과로 인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및 창조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